

2024  
고2 문학  
지학사

##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1) 제망매가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제망매가」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거나, 화자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서-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勝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 월명사, 「제망매가」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 ㉡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 ② ㉢의 의미는 죽은 누이이다.
- ③ ㉣은 극락세계로,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신라 시대의 10구체 향가 작품이다.
- ⑤ 종교적 승화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나’는 누이를, ㉡의 ‘나’는 화자를 가리킨다.
- ② ‘아아’는 감탄사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한 가지’는 화자와 누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④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움과 인생 무상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죽은 누이를 ‘떨어질 앞’에 비유하며 누이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勝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 월명사, 「제망매가」

3. 윗글의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화자는 ㉠에서 갖게 된 소망을 ㉡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ㄴ. ㉠은 화자가 누이와 이별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누이와 재회하는 공간이다.
- ㄷ. ㉡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고, ㉠은 아직 화자가 몸을 담고 있지 못한 공간이다.
- ㄹ. ㉠과 ㉡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지속됨을 드러낸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4.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군.
- ② 비유적인 시어의 열거, 반복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군.
- ③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누이의 죽음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 체념하고 있다.
- ④ 규칙적인 음보를 활용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인생의 무상감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머뭇거리고’에 드러나는군.
- ②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겠군.
- ③ 죽은 누이를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 ④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죄책감이 ‘가는 곳 모르 온저’에 드러나는군.
- ⑤ ‘아아’는 낙구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군.

신유형

「제망매가」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10구체 향가, 혹은 향가의 갈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문학 감상의 관점에 대해 묻는 문제, 학습 활동에 제시된 길재의 시조의 표현상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시조의 갈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서정 갈래에 대해 묻는 지문도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작품뿐 아니라 4(1) 단원 도입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 월명사, 「제망매가」

**6. 문맥적 의미로 보아 ㉠과 ㉡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거양득(一擧兩得), ㉡: 윤회 사상(輪回思想)
- ② ㉠: 조삼모사(朝三暮四), ㉡: 인생무상(人生無常)
- ③ ㉠: 윤회 사상(輪回思想), ㉡: 아미타불(阿彌陀佛)
- ④ ㉠: 인생무상(人生無常), ㉡: 조삼모사(朝三暮四)
- ⑤ ㉠: 인생무상(人生無常), ㉡: 윤회 사상(輪回思想)

**7. 다음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ㄴ. 3단 구성으로 시조의 3장 형식과 유사하다.  
 ㄷ. 누이와의 이별의 아픔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고 있다.  
 ㄹ.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ㅁ. 낙구의 첫 어절의 감탄사는 고려 속요의 후렴구에 대응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 ③ ㄴ, ㄷ, ㄹ, ㅁ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탄사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 ② 인간사를 자연사에 비유하여 아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인식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현재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 신념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⑤ 향가 형식 중 가장 정제된 10구체 향가로 시조에 영향을 준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9. 다음 중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하나는?**

- ① 형숙: 나의 누이가 갑작스레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어.
- ② 인숙: 이 작품을 통해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
- ③ 유숙: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신라인들의 불교적 윤회 사상에 대해 엿볼 수 있었어.
- ④ 청숙: 화자가 승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일 거야.

- ⑤ 영숙: '떨어질 앞처럼'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이 쓰였어.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1~2구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표기 방식이다. 주로 체언이나 어간 등의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의미를 빌려 적고, 문법적 요소인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 우리말을 적었다.

한자	生	死	路	隱	
훈과 음	살 생	죽을 사	길 로	숨길 은	
한자	此	矣	有	阿	米
훈과 음	이 차	어조 사 의	있을 유	언덕 아	쌀 미

\* 김완진 해독을 바탕으로 탐구함.

- ① '隱', '有'는 한자의 소리를 빌려 표현하고 있군.  
 ② 문장 성분의 위치가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하는 군.  
 ③ '路', '此'는 체언으로 판단하여 한자의 뜻을 빌려 표현하고 있군.  
 ④ '阿米'와 같은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소리를 빌려 표현하고 있군.  
 ⑤ '生死'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군.

11.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만남 → ㉡ → 이별 → ㉢ → ㉣ 만남

- ① ㉠은 '같은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통해 이승에서의 인연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는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는 '같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통해 비유적으로 나타난다.  
 ④ ㉢는 '도(道)를 닦으며 기다린다.'라는 화자의 행위로 나타난다.  
 ⑤ ㉡에 나타난 이별의 아픔이 ㉢에서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 월명사, 「제망매가」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시적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② ㉡: 누이의 이른 죽음을 의미한다.  
 ③ ㉢: 시적 화자와 죽은 누이를 모두 가리킨다.  
 ④ ㉣: 죽은 누이를 가리킨다.  
 ⑤ ㉤: 도교의 무위사상이 나타나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 ㉠은 '누이', ㉡은 '화자'를 의미한다.  
 ② ㉢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③ ㉣은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정토로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④ 윷글은 신라 시대에 성행한 10구체 향가이다.  
 ⑤ 윷글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2. 정답 ④

-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움(기구)을 느끼고, 인생무상(서구)을 느끼지만, 결국에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재회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① ㉠은 죽은 '누이', ㉡은 '화자'를 의미한다.  
 ② '아아'는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③ '한 가지'는 같은 부모, 한 부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화자와 누이가 동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죽은 누이를 '떨어질 앞'에 비유하여 누이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등,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3. 정답 ①

- ㄱ. 화자는 ㉠에서 갖게 된 누이와 재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에서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ㄴ. ㉠은 화자와 누이가 이별한 이승이고, ㉡은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ㄷ.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은 ㉠이고, ㉡은 나중에 화자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ㄹ. ㉠과 ㉡의 대비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4. 정답 ①

윷글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②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으나, 비유적 시어를 열거하거나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③ 윷글의 작가는 이미 승려이고, 배경 설화를 통해 화자가 작가와 동일한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윷글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재회를 소망하고 있을 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 체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윷글은 규칙적인 음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윷글은 결국에서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을 뿐,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 5. 정답 ④

'가는 곳 모르온저'에서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이 드러날 뿐, 죄책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① 윷글의 '생사(生死) 길은 /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머뭇거리고'의 주체를 '누이'로 보는 해석도 있음.)

② '나는 간다'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죽은 누이를 '떨어질 앞'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아아'는 낙구 첫머리에 오는 감탄사로 시상을 집약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 6. 정답 ⑤

인생무상은 '인생이 덧없음.'의 의미로 ㉠의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윤회 사상은 생명이 있는 것, 즉 중생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고 하는 불교사상으로 ㉡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① 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의 의미로 ㉠과 관련이 없다.

② 조삼모사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로 ㉠과 관련이 없다. 인생무상은 '인생이 덧없음.'의 의미로 ㉠과 관련된다.

③ 윤회 사상은 생명이 있는 것, 즉 중생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고 하는 불교사상으로 ㉠과 관련되며,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로 '미타찰'을 다스리는 존재이므로 ㉠과 관련된다 고 볼 수는 있으나, ㉠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인생무상은 '인생이 덧없음.'의 의미로 ㉠과 관련되지만, 조삼모사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로 ㉠과 관련이 없다.

7. [정답] ⑤

ㄴ. 윗글과 같은 10구체 향가는 '기-서-결' 3단 구성으로, 후대 갈래인 시조의 '초장-중장-종장' 3장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ㄷ. 윗글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ㄹ. 윗글의 결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ㄱ.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약보』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려 속요이다.

ㄴ.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는 시조 종장의 첫 구에 대응된다.

8. [정답] ③

윗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기)과 인생무상(서)을 드러내다가, '아아'를 기점으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결)하며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현재의 슬픔을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윗글은 낙구 첫머리 감탄사 '아아'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② 윗글은 누이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계절의 순환에 따른 자연물의 생장과 소멸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④ 윗글은 결구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⑤ 윗글은 향가의 형식 중 가장 정제된 10구체 향가로, '기-서-결' 3단 구성과 낙구 첫머리 감탄사라는 형식적 특징이 후대 갈래인 시조의 '초장-중장-종장' 3단 구성, 종장 첫 구에 3음절이 와야 한다는 형식적 특징에 영향을 주었다.

9. [정답] ⑤

구조론적(절대주의적) 관점으로,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예이다.

①, ② 효용론적 관점으로,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예이다.

③ 반영론적 관점으로,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예이다.

④ 표현론적 관점으로,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한 예이다.

10. [정답] ①

'隱'은 형식 형태소 '은'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은 것이지만, '有'는 실질 형태소 '있-'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적은 것이다.

② 윗글을 향찰로 기록된 우리말 노래로, 우리말의 어순대로 기록하였다.

③ '路'는 체언 '길'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적은 것이고, '此'는 '예(이곳)'이라는 체언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적은 것이다.

④ '阿米'는 형식 형태소 '-으매'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은 것이다.

⑤ '生死'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은 것이다.

11. [정답] ⑤

㉠에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이 ㉡에서 종교적으로 승화, 극복된다.

① ㉡는 '한 가지'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와 누이가 동기간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로, 이는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③ ㉠는 누이의 죽음으로,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④ ㉡는 슬픔의 종교적 승화로, '도(道)를 닦아 기다리'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12. [정답] ②

㉠은 누이의 이른 죽음, 누이의 요절을 의미한다.

① ㉠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③ ㉡는 같은 부모(한 부모)를 의미하며 화자와 누이가 동기간임을 드러낸다.